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내부 이견으로 금리 인하 불확실하다
- Reuters: 연준 의사록, 많은 관리들은 인플레이 압력 우려 보였다
- WSJ: 지난 주 미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 줄었다

[미국 금융]

- Bloomberg: 골드만삭스, "달러, 위험 통화처럼 거래될 가능성 보여"

[뉴욕시]

- Bloomberg: 맨해튼 임대료 최고치...더 오른다

[물류]

- WSJ: 미 창고 공실률 10년 만에 최고치

[무역전쟁]

- WSJ: 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부과...정치적인 이유

[오일]

- WSJ: OPEC, "석유 시대 끝나지 않았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델타 항공, 여행 수요 침체에도 2분기 수익 크게 증가
- Reuters: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로 5억 달러 비용 절감...인력 줄어
- Bloomberg: 일론 머스크, "Grok 챗봇 테슬라 차량에 탑재한다"
- Bloomberg: 모더나,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 승인...RFK 비판에도 불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What Division Inside the Fed Means for Future Interest-Rate Cuts 연준 내부 이견으로 금리 인하 불확실하다

- 연준은 어떻게 트럼프 관세의 리스크를 처리할지 논쟁 중으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파월 의장은 물가 지표의 둔화와 고용 둔화를 보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연준 내부는 관세 비용 여파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인플레이에 대한 견해, 향후 금리 인하의 타이밍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WSJ 기사

Reuters: Fed minutes show little support for interest rate cut later this month

연준 의사록, 많은 관리들은 인플레이 압력 우려 보였다

- 어제 발표된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양일간 정례 회의에서 극히 일부는 빠르면 7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많은 참석자들은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주는 트럼프 관세의 예상되는 인플레이 압력을 여전히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대부분의 참석자는 관세의 가격 쇼크는 일시적이거나 둔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다봤다.

Reuters 기사

WSJ: U.S. Jobless Claims Fell Last Week

지난주 미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 줄었다

-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당초 전문가 예상치 23만 5천보다 적었다.
-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건 전체 건수는 1백97만 건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이래 가장 높아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추세를 보면 취업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Goldman Warns Dollar Can Quickly Trade Like Risky Currency Again

골드만삭스, “달러, 위험 통화처럼 거래될 가능성 보인다”

- 지난 수주간에 달러 변동성은 누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위험한 통화로 거래될 수 있다는 이유들이 많다는 것이다.
- 골드만 삭스는 그 같은 이유로 1) 관세와 연준의 독립성에 관련된 정책적인 불확실성 2) 연방 부채 우려 3) 미국 자산의 비중 축소나 다변화 등을 꼽고 있다.
- 한마디로 트럼프 관세로 인한 달러 약세로 인해 달러가 안전 자산이라는 지위가 영구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 골드만삭스는 그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황들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Manhattan Rents Hit Another Record With More Increases to Come

맨해튼 임대료 최고치... 더 오른다

- 맨해튼 임대료가 계속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월 새 임대료의 중간값이 월 \$4,625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7.6% 인상됐다.
-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건물주는 중개 수수료를 여러 다른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해서 인플레이가 동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세와 운영 비용이 상승해 건물 유지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물류]**WSJ: Warehouse Vacancies Climb to Highest Level in More Than a Decade****미 창고 공실률 10년 만에 최고치**

- 미 창고 공실률이 올해 2분기에 7.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무역 정책 변화 때문이다.
- 기업들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임대 계약을 미루고 있고 제품 보관을 위해 기존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
- 이 같은 높은 공실률에도 불구하고 창고 임대료는 매년 3%씩 상승하고 있다.

WSJ 기사

[무역 전쟁]**WSJ: Trump to Impose 50% Brazil Tariff, Citing Bolsonaro Trial****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부과...정치적인 이유로**

- 트럼프는 브라질의 전 대통령 Jair Bolsonaro와 미 기업들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압박을 이유로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트럼프는 그가 쿠데타 시도 혐의로 브라질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을 비판하면서 과거 자신의 정치적인 핏박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이 같은 관세 조치로 양국 거래 규모 9백20억 불 무역은 흔들릴 수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올해 74억 불의 무역 흑자를 보았다.

WSJ 기사

[오일]**WSJ: Oil Age Is Far From Over, OPEC Says****OPEC, “석유 시대 끝나지 않았다”**

- OPEC이 세계 석유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OPEC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 수요는 2030년에 하루 1억 1,300만 배럴, 2050년에

는 약 1억 2,3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석유가 에너지 구성의 약 30%를 차지하고, 가스와 합치면 2050년까지 5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며 석유 수요의 정점은 아직 멀었다고 덧붙였다.
- OPEC의 낙관적인 전망은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에 달려있다. 이들은 작년 에너지 수요 증가는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의 확장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며 비롯되었다 밝혔다.
- OPEC은 이러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향후 25년간 18조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Delta Air Lines Shares Jump Despite Travel Slowdown

델타 항공, 여행 수요 침체에도 2분기 수익 크게 증가

- 델타 항공이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더 좋은 3분기 실적을 전망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앞서 델타 항공은 4월 관세 부과로 인해 남은 기간의 실적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델타 항공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2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델타 항공은 국내선 수요가 연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점차 안정될 것이라 말하며, 델타 항공의 프리미엄 항공권 판매는 5% 증가했지만 일반석 항공권 판매는 5%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WSJ 기사

Reuters: Microsoft racks up over \$500 million in AI savings while slashing jobs, Bloomberg News reports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로 5억 달러 비용 절감...인력 줄어

-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AI 인프라 대규모 투자를 하는 가운데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인력의 약 4%를 감축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 마이크로소프트 COO Judson Althoff는 “AI 도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회사는 소규모 고객 대응을 위해 AI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초기 노력이 이미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 또한, Althoff는 AI가 신제품 코드의 35%를 생성해 출시 시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대형 기술 기업들은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수익 보호를 위해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인력 감축도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된다.

Reuters 기사

Bloomberg: Musk Says Grok Chatbot Coming to Tesla Vehicles by Next Week

일론 머스크, “Grok 챗봇 테슬라 차량에 탑재한다”

-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가 개발한 챗봇 ‘Grok’을 다음 주까지 테슬라 차량에 탑재하겠다고 발표했다.
- Grok은 최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서 반유대주의 게시물 논란 이후 새 버전으로 공개되었고, 머스크는 이 신버전 챗봇의 성능이 OpenAI의 모델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 이번 조치는 판매 부진에 대한 투자자들의 압박 속에서 테슬라와 xAI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졌다. xAI는 테슬라와 1억 9,83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한 바 있다.
- 이 소식이 전해진 후 테슬라의 주가는 2.8%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oderna Covid Shot for Kids Cleared in Face of RFK Criticism**모더나,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 승인...RFK 비판에도 불구하고**

- 미국 규제 당국이 모더나의 12세 미만의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
- 케네디 보건 복지부 장관은 2021년 코로나19가 중증 질환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FDA에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 승인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백신 접종을 승인한 것이다.
- 올해 5월, 케네디 보건 복지부는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권장 예방 접종 목록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했지만, FDA는 65세 이상 모든 성인과 중증 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승인했었다.
-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4년 8월까지 18세 미만 아동 15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밝히며, 연구원들은 약 600만 명의 미국 아동이 장기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추정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美 엔비디아,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으로 시총 4 조 달러 '터치'**

지난해 6 월 시총 3 조 달러 달성 이후 13 개월만에 1 조 달러 증가 2023 년 초 이후 주가 10 배 이상 상승..."엔비디아 칩 수요 엄청나"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가 9 일(현지시간)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시총) 4 조 달러(약 5 천 502 조원)를 '터치'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약 2.5% 오른 164.42 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총이 4 조 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 기업 중 시총이 4 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애플이 2022 년 1 월 장중 시총 3 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3 년 6 개월 만이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